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학년도 세종지역 유아임용에 최종 합격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3학년도에 세종지역 1차 컷+0.67로 합격하여 최종 컷 -1.72라는 성적으로 최불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차 모두 민샘 커리를 따라가며 1차 컷+3.33, 최종 세종지역 수석이라는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석이라는 말만 들으면 정말 공부를 잘 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이나 올해나 “이정도면 됐어! 완벽해”라는 생각이 든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마지막까지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 부분을 암기하고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올해 도전하시는 모든분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재수 공부방법을 시기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3~6월

3월에는 개론 중 민샘 커리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발달이론을 한달동안 공부하였습니다..ㅎㅎ 2차 시험이 끝나고나서 그동안 쉬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심리도 있었고 무엇보다 초수 때 올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했던 시간이 생각나서 도저히 시작을 못하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1월부터 개론 강의가 시작되어 벌써 엄청 많은 강의를 밀려있다는 압박감과 부담감도 컸기에 더는 미루기 힘들 것 같아 우선 시작이라도 해 보자는 마음으로 공부한 시기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하루에 공부한 시간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수여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초수 때는 열심히 개론과 논술강의, 해설이를 따라가느라 벅찼던 기억이 있기에 혹시라도 초수이신분들은 3월부터 당연히 모든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강의 진도라도 잘 따라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6월에는 밀린 개론과 각론, 기출 강의를 따라잡는 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3~6월 공부를 요약하자면 빠르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영역별 강의 수강 후 바로 복습을 하고 기출 분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밀린 강의도 많고 조금 지쳐서 나중에는 영역별로 강의를 수강한 후 바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을 복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재수여서 작년에 이미 기출을 여러 번 회독한 경험이 있기에 강의를 듣고나서 기출을 바로 푸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또 저는 작년에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기본서에 적어두었습니다. 또 제가 특정 개념에 대해 쉽게 서술할 수 있는 개념의 정의 방법도 고민해보았는데 이 부분은 초수의 경우 자칫하면 오개념이 형성될 위험이 있고 앞으로 계속 민샘 커리를 따라 공부하면서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서술 방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출 분석

저는 기출 문제를 거의 전부 기본서에 표시해두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 출제된 년도를 표시하였으며 빨간 형광펜으로 주관식, 노란 형광펜으로 객관식, 초록 형광펜으로 기출 지문에 나온 개념의 내용이나 사례를 표시해두었으며 그 외에도 파란색으로는 기출되지 않은 사례나 단계 순서, 주황색으로는 강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기본서에 있는 수많은 글 중에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출용어와 개념 설명으로 암기할 수 있으며 출제 흐름을 파악하여 예측하고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 암기 방법

제가 3월부터 시험을 보기 전까지 많은 내용을 암기할 때 유용하게 썼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노래

이 방법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개념이나 단계의 명칭과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저는 동요나 가요를 직접 개사하거나 유튜브에 나오는 몇몇 분들의 암기 노래 영상을 참고하여 외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고시문의 경우 유튜브에 있는 고시문송을 이용해 암기할 것이고 저 역시도 작년에 이 방법으로 암기하면서 노래로 외운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수하면서 작년 암기 방법을 떠올릴 때 두문법을 이용한 암기방법보다 노래로 외운 내용들이 노래를 몇 번만 부르다보면 다시 정확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더 쉽게 암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재수할 때는 더더욱 완벽하게 암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래로 암기하며 암기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최대한 연상되는 노래로 개사를 한다면 기억을 하는 게 더욱 쉬워집니다:) 예를들어 로저스의 상담이론의 경우 '로저스' → 빅뱅의 'loser'가 발음이 비슷하여 바로 연상이 되길래 이 노래 가사에 로저스 이론의 개념들을 넣어 암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래 암기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암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두문법

이 방법은 단계 및 주요개념의 명칭이나 순서를 암기하는 데 용이한 방법입니다. 특히 그냥 의미없는 단어들을 나열하여 암기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의미가 연결되도록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브로우디의 미술감상의 경우 '감형기표' → 감형됐어! 기빠!! 부럽지?(브로우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암기하였습니다.

* 논술

논술의 경우 5~8월까지 강의를 따라가면서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강사님의 해설강의를 듣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논술을 작성한 뒤 강사님의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는 형식으로 빠르게? 공부해나갔습니다. 참고로 초수의 경우에는 저도 3월부터 개론과 병행하였습니다! 매주 논술을 1개씩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듯 하지만 저는 밀린 개각론 강의 진도를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2~3주에 1개 혹은 3개씩 몰아서 쓰기도 했습니다~! 매주는 못하더라도 논술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술을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논술 스터디

참고로 저는 초수 때 대학교 동기들과 논술 스터디를 7~9월 중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터디의 효과로는 같은 주제 안에서 다른 강사님을 듣는 동기의 글쓰기 방식을 보고 나에게 더 쉬운 논술 작성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과 동기들의 피드백과 논술 작성법을 보며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채점자의 입장에서 글을 보면서 보다 객관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수 때는 따로 논술 스터디는 하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였습니다.

● 7~8월

이 시기에는 문제풀이반 진도에 맞추어 문풀 위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영역을 빠르게 훑어보는 느낌이었다면 이때부터는 한 영역을 꼼꼼하면서도 깊이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단권화

저는 이때 민 쌤의 요약하개, 웹지도라는 요약본에 단권화를 해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본서에 정리해둔 기출을 다시 요약본에 옮기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직접 요약을 하는 것보다 민 쌤의 요약본을 활용하면 단권화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수험생인 제가 요약을 하다보면 중요한 내용을 빼먹는 위험한 실수를 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양을 늘려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아임용을 잘 알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뛰어난 민 쌤의 요약본을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담아 단권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문제풀이

우선 문제를 풀기 전 해당 영역에 대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제 복습방법은 먼저 민 쌤 요약본에 기본서에 정리한 내용을 모두 옮기고 암기가 부족한 부분은 노래와 두문법을 만들며 계속해서 암기를 공고히 해 나갔습니다. 또 기본서 내용보다는 요약본에 나온 개념 정의들 위주로 세세하게 암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습 후에 문제 풀이를 시작했으며 이때 풀면서 헛갈리는 문제나 틀린 문제 등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나서 강의를 들었고 그 후 문풀에 나온 지문, 사례, 중요한 서술형 등을 웹지도에 정리하며 단권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문풀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문제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A(again)은 다시풀어야 하는 문제, T는 강사님이 짚어주신 문제, ★은 민 쌤이 강조하신 문제나 개인적으로 서술이 어렵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풀기 까다로웠던 문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저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나중에 중요한 문제 위주로 놓치지 않고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 문제내기 스터디(초수&재수)

저는 초수와 재수 모두 동기 2명과 함께 문제내기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문제를 내고 답하는 것으로 문풀반 진도에 맞추어 해당 영역에 대한 문제를 냈으며 3문제 정도씩 만들어진 후 문제를 내고 맞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스터디를 할 때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문제를 낼 때 제가 혼자서는 잘 안외워지거나 어려운 개념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친구가 제가 어려워한 개념을 술술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오기가 생겨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잘 외워졌습니다. 또 제가 어려운 부분은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때 서로 힌트를 내거나 암기방법을 주고받으며 암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가진 오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었으며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답을 못하는 저만의 구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고시문 & 해이실

강사님의 강의와 정리본을 보며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유튜브에 나오는 고시문 송으로 완벽하게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이실도 유튜브에 나오는 노래로 목차를 암기하였으며 해이실의 세부적인 내용은 강사님이 강조하신 내용 및 기출된 내용을 표시하며 여러번 회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법의 경우에는 사실 시간 투자를 가장 적게 하였으며 여러 강사님들이 짚어주신 부분과 새롭게 개정된 내용들을 위주로 읽어보는 정도로만 공부하였습니다.

* 안전

안전 역시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경우 노래로 암기하였고 다른 모든 내용들을 여러 번 회독하거나 직접 노래를 개사하며 암기하였습니다.

● 9~10

모의고사반 진도에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실제 시험보는 것처럼 토요일 9시부터 문제를 풀었습니다. 쉬는 시간의 경우 생략하거나 짧게 가져 점심먹기 이전에 모의고사 1회분을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며 시간 안배하는 저만의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터넷에서 omr 답안지를 구매하여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모의고사 문제를 민쌤의 요약본에 단권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시문과 해이실, 안전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며 내용을 암기해나갔습니다. 또한 강사님의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가 속한 개각론 파트는 요약집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피며 집중 공략을 해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시기 문풀 문제 중 표시해둔 문제 위주로 다시 풀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때 강사님의 문제 서술방식을 제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크게 기울였습니다.

● 11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논술과 모의고사 1회를 실시하였고 이때는 요약본을 전체적으로 빠르지만 꼼꼼하게 완벽 암기에 집중하여 여러 번 회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풀었던 모의고사의 틀린문제와 제가 표시해둔 문제 위주로 다시한번 풀어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준비

* 발표전

마음이 잡히지 않아 하루에 면접1 수업실연1개 정도만 하였고 안한날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최불합 경험이 있어서 잊었던 감을 되살리기 위해 그래도 매일 한번은 해보자를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초수이신 분들이라면 합격 발표 후부터 준비하기 빠듯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시기 스터디를 꾸려서 어떻게 진행되는 지 미리 경험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 발표 후

여러 강사님들의 피드백을 신청하였고 하루에 면접과 실연 2세트씩을 목표로 하였지만 2세트를 다 하지 못하고 한 수업을 여러 번 보완해나가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한 날도 정말 많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수업과 면접을 하고나서 직접 보완해서 다시 해보며 내 답변과 수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2차 준비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민쌤의 2차 지도는 정말 정말 만족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ㅜㅜ 민쌤은 정말 끝까지 저희를 책임져주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대면으로 면접과 실연을 봐주실 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한번 더 만나서 수업실연을 봐주십니다! 또 스피치 전문 강사님을 직접 소개해주셔서 1:1로 면접 지도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었고 민쌤의 제자 중 현장 경력이 많으신 멘토 선생님을 소개해주셔서 일주일전에 3번이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수 때 면접 -11.27, 실연 -3.67 최불합에서 재수때 면접 -2.47, 실연 -0.17이라는 점수로

상승이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수 때 특히 면접에서 가운데에서 저를 무섭게 노려보시는 면접관님께 압도되어 위축되고 긴장된 상태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격생들의 2차 복기를 보면서 제가 말한 답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왜 저는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을까 고민을 해보았을 때 무엇보다 자신감없는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면접 구상형의 경우 서론, 본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까먹고 말하지 않았으며 즉답형3번은 마지막 5번째 답을 이야기할 때 키워드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종이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자신감 없이 모든 답을 말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감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제가 심사위원분들 한분한분과 눈을 마주치며 계속해서 미소를 잃지않으며 당당하게 답변하는 자세를 이어갔던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고 밝게 웃는 태도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